

25 House Of Gucci - My First Suit

이탈리아에서 친구 - 친구의 동생은 나의 동생

R 주말 오후에 형이 시내를 가지고 했다. 무슨 일이 있나보다 하고 나섰다. 피렌체 시내의 좁은 골목들을 돌고 돌아서 어느 가게의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성복을 파는 곳이었다. 모자부터 양복 캐주얼 구두까지 한 번에 판매하는 당시에 한국에는 없는 방식의 가게였다. 형은 주인과 잘 아는 사이 같아 보였다.



M 우리를 지켜보던 가게주인은 잠시 뒤 계산기를 찍어 보여주며 말했다. “형 120 만 너 120 만 그리고 함께 120 만 리라 ?” 그는 형과 나에게 계산기를 보여주었다. 나는 어리둥절해 있고 형과 주인장은 한참을 길게 이야기 하고는 주인장이 나에게 말했다. “너의 형과 나는 오랜 친구다” 그래서 친구의 동생은 나의 동생이다.“

둘은 반갑게 포옹을 하고 나서 날씨부터 가족 친구 사업 건강까지 족히 30 분을 이야기 했다. 그리고 형은 양복을 입어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에게도 한 벌 입어 보라고 했다. 나는 양복을 입을 일이 거의 없어 필요 없다고 했더니 형이 인상을 찌푸리며 한 벌 고르라고 재촉하는 바람에 얼떨결에 입어 보게 되었다.

형은 옷을 고르고 계산을 하려고 했다 가게의 주인은 형의 옷과 함께 내가 입어 보았던 양복을 쇼퍼백에 담으려 했다.

한국에서 온 나의 동생에게 옷가게를 하는 형이 양복을 한 벌 선물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마침 옷이 어디하나 고칠 필요가 없이 잘 맞아서 아주 기쁘다. 멋있게 입어다오 “나의 첫 번째 양복 구찌였다.

25

GUCCI

이탈리아 물가를 잘 모르는 내가 보아도 옷감이나 디자인이 보통 고급 옷이 아니었다. 나는 걱정이 되어 가격이 얼마나 하냐고 물었다. 가격표를 보라고 했다. 120 만 리라 한국 돈으로 70 만원이었다. 당시 대학 등록금이 55 만원 정도 였으니 실로 엄청난 금액이었다. 나는 조용히 옷을 제자리에 내려놓았다



나는 형에게 내 옷은 사지 않아도 된다고 다시 이야기 했다. 한국말로 이야기 하고 있었지만 내가 사지 않으려 한다는 것은 가게 주인도 알 수 있었다.

PS 구찌가 대중화 된 적이 있었다. 색감 디자인이 전혀 구찌가 아니었다. 저릴 수가 없을 텐데 ? 라고 생각했다. 영화 속에서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는 파올로 구찌가 벌인 일이었다.



House of Gucci

25